

수입차 전문 수리
불리카 대표 박형수

M. 010-8998-1048 H. 063-244-1048
F. 063-244-1043 전북 전주시 덕진구 인후동1가 943-9

공감뉴스 전·북·을·세·계·로

전북타임스

The JeonBuk Times

그랜드자동차
운전전문학원

대표원장 이장섭

Mobile. 010-4652-7327
Tel. 063-717-4444 Fax. 063-274-4445
E-mail. leewww2@naver.com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공취발원로 1614(상림동 60)

대표전화 (063)282-9601
인터넷 jeonbuktimes.co.kr

2025년 2월 6일(목) 제 3029호



전북 농수산물 수출 촉진협의회 도는 5일 '2025년 전북특별자치도 농수산물 수출 촉진협의회'를 개최하고 해외시장 개척 및 수출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관련기사 4면) <사진=전북도>

도, 농생명수도육성...지속가능농업 실현

식품기업 매출액 6조5천억, 농가소득 5천7백만원 목표 설정
6대 전략 18대 핵심과제 수립...1조6천931억원 집중 투자

전북자치도는 민선 8기 도정 5대 목표로 '대한민국 농생명산업 수도' 육성을 제시하고 올해 6대 전략, 18대 핵심과제에 식품기업 매출액 6조5천억, 농가소득 5천7백만원 목표를 설정했다고 5일 밝혔다.

도는 청년창업 스마트팜 패키지 지원, 청년 농업인 임대스마트팜 건립 등 신규 17ha(누계 52ha)의 첨단 스마트팜을 조성해 전국 최고 수준의 스마트팜 창업보육 환경을 구축해 나갈 방침이다. 또 청년 농업 7백명을 신규 육성하고 정책자금 이차보전, 영농정책 지원금,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자금 지원 등으로 안정적 정착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도내 유망 식품기업을 스타기업으로 육성, 기업과 지역농업이 연계한 동반성장 기틀을 마련하고 지역 먹거리의 조직화, 친환경 급식의 도내 농산물 공급 확대와 함께 생산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농산물 물류기기의 공

동이용 등을 지원하여 농산물 유통 경쟁력을 강화한다. 농식품의 수출 확대를 위해 중동, 호주, 캐나다 등의 신시장을 개척하고 수출농가 및 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유망품목 육성 등으로 글로벌 시장 경쟁력을 한층 높여 나갈 계획이다.

종자생명산업클러스터 조성, 국가식품클러스터 2단계 확장을 위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상반기 중 신청하고 동물용 의약품 시제품 생산시설은 상반기에 착공, 임상시험센터는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등 동물용 의약품 산업 기반을 한층 견고히 할 계획이다. 또한, 지난해 선정된 남원 ECO 스마트팜, 고창 사시사철 김치 등 농생명 선도지구 7개소를 연내에 농생명산업 지구로 지정·고시하고 각 지구별 관련기업 투자유치를 통해 농업의 혁신성장 거점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유리베네티온실 등 ICT 및 시설 지원 180ha,

스마트 시설 투자 지원 150개소 등을 신규로 추진하고 저탄소 농축산 프로그램 및 저탄소 농산물 인증면적 확대 등을 통해 지속가능한 환경친화형 농업기반을 구축한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9천명 도입, 외국인 근로자 기숙사 3개소 신규 조성 등으로 연간 60만명 이상의 인력을 농촌에 공급해 농번기 인력수요에 대응하고 안정적 농업경영 보장을 위해 농민 공익수당 지원대상을 농가에서 농업인으로 확대하며 기본형 공익직불제 단가인상, 농업수입보장보험 확대, 농촌기본소득을 시범 도입하는 등 농가소득 안정망을 확충할 계획이다.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계획을 수립하고 농촌 유희시설 리모델링 4개소를 신규 조성해 농촌 서비스 공간을 확대하고 농촌경제·사회서비스 활성화 지원센터를 3월 완공해 농의 열약한 사회서비스 공급을 위한 전국적 교육훈련기관의 역할을 수행한다.

또한, 농촌 돌봄서비스 및 여성농업인 편의장비 지원 확대 등으로 농업인 생활환경 개선도 추진할 계획이다. /최준호 기자

1조 규모 전북 벤처펀드, 지역 벤처·창업생태계에 활력

전북 벤처펀드 올해 1조원 달성...펀드 조성 가속화
매년 2백억원 내외 출자 비수도권은 전북자치도가 유일

전북자치도가 지역 투자 생태계에 혁신의 바람을 일으키며 막강한 자금력을 바탕으로 벤처·창업 활성화에 활력을 불어 넣고 있다.

도는 '전북 혁신성공 벤처펀드' 1조원 달성을 위해 올해 9개 펀드, 약 2천640억원을 추가 조성한다고 5일 밝혔다. 현재까지 조성된 전북 벤처펀드는 8천533억원에 달한다.

김관영 도지사는 "규모와 실행력을 겸비한 벤처펀드 투자로 지역 산업의 혁신과 성장을 이끌어 가겠다"며 "투자 기반의 경제 선순환은 기업경쟁력 강화와 지역 소멸 위기를 완화하는 중심적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벤처·창업 생태계 활성화의 필수 조건은 관련 인프라 구축과 기업친화적 투자 환경이다. 정부는 지난해 벤처·창업 육성 정책으로 담테크 벤처기업 등에 중점 투자하는 2조 규모의 스타트업 코리아

펀드 조성과 벤처펀드 출자예산 확대를 통해 민간 주도 투자생태계 활성화 방향을 설정했다.

문제는 투자 환경의 지역편차다. 정부의 투자 활성화 의지에도 불구하고 지방 투자 여건은 녹록지 않은 상황이다. 투자사 대다수가 수도권에 소재하고 있는데다 벤처투자의 70% 이상이 수도권에 편중되어 있기 때문이다. 도내 창업·벤처생태계의 활력을 위해서는 외부로부터의 투자 유치와 기업공개(증권시장 상장) 등의 성공 사례 도출이 절실하다. 이 때문에 도는 지역적 한계성을 뛰어넘어 벤처·창업생태계에 활력을 북돋을 수 있는 '전북 혁신성공 벤처펀드' 조성에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1조 규모의 벤처펀드를 기반으로 도내 벤처·창업기업의 투자 기회를 확대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도는 벤처펀드를 조성하기 위한 자원과 기존 벤처펀드로부터 나

오는 자금을 별도로 마련하기 위해 '중소기업육성기금 투자계정'을 지난해 7월 신설하고 운영 중이다. 민선8기 들어 결성돼 운용 중인 전북 벤처펀드는 17개 펀드에 6천428억원 규모다. 현재까지 총 규모는 8천533억원으로, 2년여만에 4배 이상 벤처펀드 결성액이 증가했다.

전북 벤처펀드 운용사도 2년여만에 6개사에서 31개사로 대폭 늘었다. 도는 이를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전북벤처펀드 운용사 컨소시엄' 구성을 지난 11월 마친 상태다. 올해 상반기에 2개 펀드, 3백억 이상 펀드를 결성하고 하반기에 추가로 7개, 2천340억원 이상 결성할 계획이다. 도는 연내 총 2천640억원 이상의 결성액을 목표로 265억원을 출자할 계획이다.

도는 전북은행, 성일하이텍, 비나텍 등 지역의 선배기업 등을 포함한 민간의 출자를 유도하고 시군 참여를 독려해 전북 벤처펀드를 함께 조성하고 있다. /최준호 기자

축제의 도시 전북, 사계절 즐길거리로 관광 활성화

전북도 시군 육성축제 36개 선정...축제 내실화 추진
지역축제 경쟁력 강화로 전북관광 활성화 기대

전북자치도는 사계절 내내 펼쳐질 다양한 축제를 통한 글로벌 축제 도시로 도약하기 위해 2025년 중점 육성할 지역축제 36개를 최종 선정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선정은 축제심사위원회가 축제의 기획·콘텐츠, 조직 역량, 안전 관리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결과로, 지역 특색이 돋보이는 향토·문화·관광 자원을 중심으로 시군 대표축제 14개, 작은마을축제 14개, 지역특화형축제 8개를 최종 선정했다.

올해 시군 대표축제로는 김제지평선축제와 무주반딧불축제가 선정됐다. 군산시간여행축제, RED

FOOD 페스티벌 장수한우랑사과랑축제, 임실N치즈축제, 순창장류축제, 고창모양성제, 부안마실축제는 최우수축제로 선정됐으며 익산서동축제, 정읍구절초꽃축제, 완주와일드&로컬푸드축제, 진안홍삼축제는 우수축제로, 전주비빔밥축제와 남원홍부제가 유망축제로 각각 선정되었다. 작은마을축제로는 얼굴없는천사축제(전주), 풍당보리축제(군산), 솔티모시축제(정읍), 혼불문학축제(남원), 지평선 광활 햇감자축제(김제) 등이 선정돼 지역 주민들의 특색 있는 이야기와 문화를 축제로 담아낸다. /정소민 기자

또한, 지역특화형축제로는 낙화놀이축제(무주), 하전바지락 오감체험페스티벌(고창), 신진마을 도자기 전통가마축제(임실) 등 각 지역만의 독창적인 테마를 살린 축제가 선정됐고 관광비수기인 겨울철 관광객 유입을 위한 축제로는 쫄쫄놀이축제(무주), 산티축제(임실)가 선정돼 이를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와 문화적 가치 제고를 도모할 예정이다.

도는 선정된 축제에 대해 도비보조금 지원, 담당자 역량 강화 교육, 맞춤형 전문가 사전 컨설팅, 현장평가, 우수 축제 벤치마킹 등 다양한 간접 지원을 통해 축제의 경쟁력을 높이고 체계적인 관리로 내실을 다질 계획이다. /정소민 기자

정읍시
JEONGEUP-SI

정읍의 3.6.9
보물을 추천해 주세요!

정읍시 대표 관광지 정읍9경을 관광명소(景)외에 정읍의 대표 특산물(品), 정읍의 대표 음식(味)로 확대하여
정읍보물 3.6.9.으로 개편하고자 합니다. 나만의 정읍보물 3.6.9.을 추천해 주세요~!

3미
? ? ?

6품
? ? ? ? ?

9경
? ? ? ? ? ? ? ? ?

정읍 3미
향토색을 품고 있으면서
지역민과 관광객의
인기를 얻고 있는 음식 선정

정읍 6품
지역을 대표하는
특산물 선정

정읍 9경
지역 대표성 및 상징성,
경관 및 문화적 우수성,
보전가치 및 활용가능성을
고려하여 관광명소로 선정

접수
방법

홈페이지 참조
문의 : 063-539-5193

접수
기한

2025. 2. 14(금) 18시

응모
혜택

추첨을 통해 정읍주요관광지 입체퍼즐을
20명에게 배부

道, 산림복지 인프라 구축에 총 2천364억 투입

탄소중립 실현 및 산림재난 선제적 대응 강화 위한 산림 정책 본격 추진

전북자치도가 산림의 경제적·공익적 가치를 높이고 탄소중립 실현과 산림재해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본격적인 산림정책 추진에 나선다.

도는 5일 도청 중회의실에서 시군 산림부서장과 서부지방산림청, 산림조합, 한국산불방지기술협회, 임업후계자협회 등 유관기관 관계자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산림자원분야 설명회'를 개최하고 올해 산림정책 방향과 주요 사업계획을 공유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탄소흡수원 확대, 산림복지 인프라 구축, 산림재해 예방·대응 강화 등 산림정책 추진 방향을 논의하고 도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가치 있는 숲 조성을 위해 협력할 것을 다짐했다.

도는 2025년 산림자원분야에 총 2천364억을 투입해 산불·산사태·병해충 등 산림재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분야별 산림복지 인프라 구축, 다양한 숲 확

대 조성을 중점 추진한다.

분야별 투자 규모는 ▲산림복지서비스 기반 구축 333억원 ▲산림자원 관리 639억원 ▲산림재해 대응 668억원 ▲임업경쟁력 강화 329억원 ▲생물·녹지공간 구축 395억원 등이다.

도는 숲이 주는 혜택을 도민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산림복지서비스를 확대하고, 기후위기에 대응해 탄소 흡수능력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생활권 도시숲과 정원을 조성할 계획이다.

또한, 최근 잦아지는 기후변화로 인해 대형화되고 있는 산불과 산사태 예방을 위해 재난 대응 역량을 한층 강화한다. 이와 함께 산사태 예방을 위해 42명으로 구성된 산사태 현장예방단 운영 등 산사태 취약지역 관리를 강화하고 체계적인 위기관리 시스템을 구축해 피해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더불어 소나무재선충병 복합방제를 통한 확산 저지 및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



전북자치도가 산림의 경제적·공익적 가치를 높이고 탄소중립 실현과 산림재해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본격적인 산림정책 추진에 나선다.

(52명) 운영, 드론·항공 예찰 병행으로 재해지고 있다"며 "산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산림재해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도민 모두가 누릴 수 있는 건강한 숲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송금현 도 환경산림국장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산림의 역할이 점점 더 중요

전북도, 도민 모두가 누리는 안전 보험 확대 강력범죄 상해 보상금 신설...도민 누구나 자동 가입

전북자치도가 도민안전보험의 보장 범위와 보상 한도를 확대해 재난 및 사고 피해로부터 도민을 더욱 두텁게 보호한다.

전북자치도는 2020년부터 각종 재난·사고로 피해를 입은 도민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도민안전보험'을 운영해 생활 안정 지원에 힘써 왔다.

올해부터는 강력범죄 상해 보상금을 신설하고 사회재난 사망 보상 한도를 기존 1천만 원에서 2천만원으로 올려 보장을 강화한다.

도민안전보험은 도내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모든 도민(등록 외국인 포함)이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되며 개인이 가입한 보험과 관계없이 중복 보상이 가능하다.

또한, 사고 발생 지역에 관계없이 전국 어디서든 보장받을 수 있어 실

질적인 안전망 역할을 하고 있다.

기본 보장 항목은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사고 ▲대중교통 사고 ▲스쿨존 교통사고 ▲의사 사고 ▲자연재난 사망 ▲강력상해 보상금 ▲사회재난 사망이다.

보험금 청구는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가능하며 네이버에서 '도민안전보험'을 검색하거나 카카오페이의 '동네무료보험'을 통해 간편하게 청구할 수 있다. 주민등록지 시군의 재난부서에서도 자세한 정보를 안내받을 수 있다.

오택립 도 도민안전실장은 "도민들이 예기치 못한 재난이나 사고로부터 실질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도민안전보험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며 "모든 도민이 빠짐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와 안내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김은지 기자

전북도소방본부 구축 AI 119콜백시스템, 전국으로 확산

전국 최초 전북 소방 AI 시스템 서울소방재난본부 도입 검토...재난 대응 패러다임 변화 예고

전북자치도소방본부(본부장 이오숙)가 전국 최초로 구축한 인공지능(AI) 기반 119콜백시스템의 효과성을 인정받아 서울소방재난본부와 협력 강화에 나섰다.

서울소방재난본부 관계자는 5일 전북 119종합상황실을 직접 방문해 AI 기반 긴급구조시스템의 운영 방식과 성과를 심도 있게 분석하며 시스템의 핵심 기능을 파악했다.

특히 신고 폭주 시 자동 접수가 가능

한 지능형 119콜백시스템에 높은 관심을 보이며 서울 지역 내 도입 가능성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전북소방이 전국 최초로 도입한 지능형 119콜백시스템은 단순한 신고접수를 넘어 AI 음성인식 기술을 활용해 긴급 신고를 자동 판별하고 우선처리하는 최첨단 시스템이다.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집중호우, 대형 화재 등으로 119 신고 폭주 현상이 심화되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전북

소방이 선제적으로 도입했다.

이 시스템은 신고자의 음성을 분석해 긴급도를 실시간 판단하고 신속한 대응이 필요한 신고를 최우선으로 처리한다.

또한, 모바일 웹 신고 기능과 ARS 음성녹음 기능을 통해 신고자의 정보를 보다 정확하고 빠르게 파악할 수 있다.

서울소방재난본부 관계자는 "전북특별자치도소방본부의 AI 기반 긴급구조

시스템이 재난 대응의 패러다임을 바꾸고 있다"며 "서울소방도 전북소방과 협력해 AI 기반 시스템 도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최길웅 119종합상황실장은 "AI 기반 긴급구조 시스템이 실전에서 효과를 입증하고 있다"며 "서울소방과 협력해 한층 더 정교한 AI 재난 대응 시스템을 갖춰 이를 전국으로 확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박희승 의원, "산후돌봄 지역별 격차 해소해야"



박희승 의원

박희승 의원(남원장수임실순창)은 국가가 인구감소지역의 공공산후조리원을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저소득 취약계층 등의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공공산후조리원 국가 지원법'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박 의원은 개정안에서 ▲시·도지사 등은 관할 구역 내 출산 및 산후조리 인프라 구축 현황 등을 고려해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운영을 의무화하도록 했다.

이어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국가의 우선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다

문화가족, 희귀난치성 질환을 가진 산모, 장애인 또는 그 배우자, 한부모가족, 다태아 또는 셋째 자녀 이상을 출산한 산모 등에 대해 우선이용 및 이용요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법은 산후조리원의 수요와 공급 실태 등을 고려해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지 않다.

박희승 의원은 "산모와 신생아에 대한 적절한 산후 돌봄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는데 여전히 공공산후조리원은 부족하며, 거주지마다 산후조리 여건에 큰 격차가 있다"면서 "산후돌봄의 지역불균형을 완화하고 저출생 시대 국가의 역할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서울=김영목 기자

전북자치도, 이번주 대설·한파·강풍 총력 대응...도민 안전 지킨다

대설·한파 특보 관련 시군 관계부서 전북도청에서 대책회의 개최 '만반 대비'

전북자치도는 5일 최병관 행정부지사 주재로 도 협업부서 및 14개 시군과 함께 대설·한파·강풍에 대비한 대책회의를 개최했다.

기상청 발표에 따르면, 8일까지 전북 전역에 지속적으로 눈이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예상 적설량은 5~15cm이며, 전북 서해안과 남부 내륙 일부 지역은 20cm 이상의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이 있다.

또한, 강풍과 함께 기온이 크게 떨어지고 소량의 강수도 동반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회의에서는 13개 협업기능 관계부서와 14개 시군이 참여해 대설·한파 대책을 점검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주요 대책으로는 ▲취약구간(교량, 터널, 고갯길, 경사로 등) 및 상습결빙구간 제설제 집중 살포 ▲습설대비 5대 취약분야(붕괴, 전도, 미끄러짐, 정체, 고립) 예찰 강화 및 안전조치 실시 ▲한파 취약계층 관리방안 ▲한파 쉼터 및 응급대피소 개방시간 확대 등이 논의됐다.

최병관 행정부지사는 "지속적인 눈이 예보된 만큼 긴장감을 늦추지 말고 인명보호 및 재산피해 예방에 총력 대응하겠다"며 "도민들은 내 집 앞 눈 치우기, 장비 점검 등 안전수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피해가 우려되면 도와 시군에 즉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소민 기자



전북자치도는 5일 최병관 행정부지사 주재로 도 협업부서 및 14개 시군과 함께 대설한파강풍에 대비한 대책회의를 개최했다.

신영대 의원, '동물 진료거부 금지 의무자 확대법' 발의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5일 동물병원 개설자가 동물의 진료 또는 응급의료조치를 거부할 수 없도록 하는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신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현행법은 동물진료업을 하는 수의사에 한해 진료거부 금지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며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현행 수의사법 제17조 제2항에 따르면 동물병원을 개설할 수 있는 자에는 수의사뿐만 아니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동물진료법인, 수의학 전공 대학, 비영리법인 등도 포함된다. 이에 따라

이들 또한 진료거부 금지 의무를 적용받아야 한다고 돼 있다.

이에 신 의원은 수의사 외에도 동물병원 개설자가 동물의 진료 또는 응급의료조치를 요구받았을 때,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신 의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거부가 발생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반려동물과 보호자에게 돌아간다"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 동물병원 개설자에게도 진료 거부 금지 의무를 부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김영목 기자

겨울철 야외 활동시 안전수칙

기상청, 날씨앱 등으로
사전에 기상정보 파악하기

얇은 옷 여러벌을 겹쳐
입어체온유지, 보호 한다

보온및 방수 기능이
있는 장갑과, 신발을 착용한다

따뜻한물을
충분히 마신다

활동전 준비운동을 통해
움직이고 근육을 이완한다

전북도, 올해 농수산물식품 수출 7억 달성 ‘총력’

글로벌 시장 공략 본격화…세계 경기 둔화 속 수출 확대 전략 논의 촉진협의회 개최

작년 수출 역대 최고 5억9천7백만 달러 신기록 경신…해외 식품 박람회·유통망 확대

전북자치도가 도내 농수산물식품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확대하고 2025년 수출 7억 달러 달성을 목표로 본격적인 공략에 나섰다.

도는 5일 '2025년 전북특별자치도 농수산물식품 수출 촉진협의회'를 개최하고 해외시장 개척 및 수출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협의회는 김종훈 경제부지사의 주재로 시군, 수출지원기관, 수출 전문가 및 수출기업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주요 내용으로 ▲한울상 승에 따른 해외 무역 동향 및 대응 방안 ▲2025년 농수산물식품 수출 촉진 계획 ▲신시장 개척을 선도하는 식품기업 사례 ▲수출 확대를 위한 맞춤형 지원 방안 등에 의견을 나눴다.

지난해 세계 경제가 지정학적 불안과 글로벌 경기 둔화로 어려움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전북 농수산물식품 수출액은



전북도가 도내 농수산물식품 수출 7억 달러 달성을 목표로 본격 글로벌시장 개척에 나선다. 사진은 지난해 미국 홀소핑월드 농수산물식품 수출입 협약 현장.

전년 대비 19.2% 증가한 5억9천687만 달러를 기록하며 역대 최고치를 달성했다. 이는 ▲2024년부터 물류비 보조 중

단에 따른 시군 단위 '수출 농산물 경쟁력 강화 패키지사업' 신규 추진 ▲해외 거점 유통업체와의 MOU 체결 및 판촉

홍보 행사 확대 ▲'농식품수출114' 현장 행정을 통한 기업 애로사항 해소 등이 주요했던 것으로 분석된다.

도는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올해 농수산물식품 수출 7억 달러 달성을 목표로 설정하고, 3개 분야 7개 사업에 총 33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올해 전북 농수산물식품 수출 확대 전략의 핵심은 '글로벌 시장 다변화'에 있다. 이를 위해 ▲해외 유망 식품박람회 참가 ▲해외거점 유통망 구축 및 판촉 홍보 ▲신선 농산물 수출 유망품목 집중 육성 ▲해외 식품시장 분석 및 기업 맞춤형 수출 지원 등을 추진한다.

김종훈 경제부지사는 "정치적 불확실성과 소비심리 위축으로 글로벌 경기 둔화가 예상되지만 이렇듯 도시간 및 수출지원기관이 '일rip'으로 협력해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준호 기자



농촌진흥청, 영농 한파대설피해 기술지원 모색

권철희 농촌지원국장, 딸기·양돈 농가 대설 피해 현황 점검

농촌진흥청(청장 권재한)은 연이은 한파·대설로 어려움을 겪는 영농현장을 찾아 피해 상황을 살피고, 가용 자원을 동원해 기술지원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권철희 농촌지원국장이 2월 5일, 충남 홍성군에 있는 딸기·양돈 농가를 차례로 찾아 대설 피해 상황을 점검하고,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기술지원 수요를 파악했다.

권철희 국장은 "이번 주 내내 강추위가 예보되고 있어 농작물 어는 피해를 예방하고 가족 면역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어느 때보다 각별하게 관리해야 한다."라며 중앙-지방 농촌진흥기관이 현장 기술지원과 맞춤형 지도를 더욱 확대·강화하겠다고

고 밝혔다.

현재 농촌진흥청은 '겨울철 재해 대책상황실'을 주축으로 지역별 기상 및 재해 상황을 파악하고 있다. 동시에 점검 회의를 열어 기술지원 방안을 논의하고, 기상청 기상특보(주의보, 경보) 등을 각 지역 농촌진흥기관에 신속히 전파해 선제 대응을 강화하고 있다.

한편, 권 국장은 이날 농가 방문에 앞서 홍성군 구항면에서 진행된 '민관합동 영농 부산물 안전 처리 캠페인' 현장을 찾아 홍성군 영농 부산물 과폐지원단을 격려했다. 또한, 농업인들을 만나 과폐지원 서비스를 적극 이용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다.

/최준호 기자

전주정보문화진흥원-전주시정연구원, 지역산업 발전 '맞손'

지역경제 활성화·산업 발전 공동 협력체계 구축 MOU…전주시 미래산업·영화영상산업 혁신정책 발굴 중점

전주시 ICT산업 및 영화·영상산업 육성에 앞장서온 (재)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원장 하진)과 전주시 정책연구심크탱크인 (재)전주시정연구원(원장 박미자)이 지역경제 활성화와 강한 경제전주 구현을 위해 손을 맞잡았다.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과 전주시정연구원(이하 연구원)은 5일 진흥원 세미나실에서 하진 원장과 박미자 원장 등 양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산업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 자리에서 양 기관은 지역기업 육성 방안 및 국책사업 발굴을 위한 공동 대응을 통해 경쟁력 있는 지역기업을 육성하고, 지역인재 취·창업 역량 강화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상호 협력 등을 강화하기로 뜻을 모았다.

특히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전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과 전주시정연구원이 전주시의 미래산업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주시 미래산업과 영화·영상산업의 혁신 정책 발굴 및 실행 전반에 관한 협력을 중점으로 공동 협력체계를 구축할 것을 약속했다.

세부적으로 연구원은 정책 연구와 기

획을 통해 과제를 도출하고, 진흥원은 도출된 과제에 대해 지역 ICT기업과 함께 공동 실행하는 등 적극 협력해나갈 방침이다.

이에 앞서 양 기관은 지난해 '영화영

상산업 발전을 위한 전주시 중장기 전략과 과제' 공동연구 시 상호 협력을 바탕으로 연구보고서를 발간한 바 있다.

하진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은 "출연기관인 전주시정연구원과의 전략적 협업체계 구축을 계기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산업발전 기여에 집중할 계획"이라며 "전주시가 기업과 청년이 넘쳐나는 경제도시가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박미자 전주시정연구원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전주시정연구원의 정책 연구 역량과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의 실행력을 융합해 시너지를 창출할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 미래산업과 영화영상산업 혁신을 위한 협력을 강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영태 기자

국민연금공단, '전북발전 위해상생협력 이어갈 것'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태현)은 공공기관으로서 지역사회에 대한 사회적 책임 이행을 중요한 가치로 인식하고, 지역상생 문화 확산, 중소기업 지원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단은 지난 2015년 6월 본부를 전주로 이전한 후 지방이전의 취지에 따라 지역사회와 협력하고 전북 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활동을 펼쳤다.

공단은 사회공헌 특화 브랜드인 마을자치연금 사업을 운영했다. 마을자치연금은 마을 특성에 맞는 수익사업을 발굴·지원해 어르신께 연금 형식의 노후 소득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지역공동체 활성화, 농어촌지역 소멸 위기 대응에 기여했다. 2024년에만 도내 마을 4곳에 자치연금 신규 도입을 도왔으며, 지금까지 총 7곳의 전북지역 마을을 지원했다.

아울러 공단은 전북지역의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취업멘토링, 금융특강, 빅데이터 경진대회 등 지역인재 육성을

위해서도 노력했다. 또한 지역 취약계층 아동을 위한 교육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대학생 34명에게는 협의체를 통해 장학금을 전달했다.

공단은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와 '창업 지원 패키지(창업 육성 프로그램)' 사업을 추진, 예비창업자 및 창업기업 10개 사(社)의 마케팅 활동을 지원했으며 지역 중소기업 22개 사(社)의 경쟁력 강화 및 매출 증대를 위해 롯데ON, 우체국 온라인 소평 입점을 도왔다. 뿐만 아니라 전북특별자치도, 전북도의회, 우리금융그룹과 함께 업무협약을 체결해 도내 사회적경제기업의 판로개척을 지원했고, 스타트업의 사업모델을 분석 및 제공했다.

공단은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와 공동으로 주최하는 지니(GENIE)포럼 중 전북이 국제 금융도시로 도약할 방안을 모색하는 행사인 전북국제금융컨퍼런스(JIFC)를 주관하고 있다. 2024년 컨퍼런스에는 국내외 석학들이 패널로 참석해 금융시장의 최신 동향을 공유하고, 기업의 해외 진출과 투자유치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장을 마련했다.

김태현 이사장은 "지역사회와의 상생은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이라며 "공단은 2024년의 상생·협력 활동을 바탕으로 지방이전 10주년을 맞이하는 2025년에도 지역 경제 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준호 기자

농식품부 자율적 벼 재배면적 조정제 추진…8만ha 감축 목표

인센티브 등 정책 지원 강화, 지자체 농업인 참여 유도…시도 관계기관 등 대상 설명회 개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쌀 공급과잉 해소를 통한 쌀 값 안정과 농가 소득 향상을 위해 올해 8만ha 감축을 목표로 '벼 재배면적 조정제'를 추진한다.

앞서 농식품부는 지난해 12월 「쌀 산업 구조개혁 대책」을 마련하면서 '벼 재배면적 조정제'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제도 첫 시행에 따른 현장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그동안 세부 전략을 보다 구체적으로 보완했다.

먼저 시도·시군구는 지역여건을 고려해 친환경인증 전환, 전락작물 재배 등 5가지 유형별 세부 감축 계획을 2월까지 수립하고 지역농협·생산자 단체와 협력을 통해 성실히 감축을 이행한다.

▲개발행위로 인해 벼 재배가 불가능

한 농지를 대상으로 감축을 인정한다.

▲일반벼를 친환경 벼로 전환할 경우 감축 실적으로 인정된다. 실제 벼 재배는 이뤄지나 생산량이 감소하는 점을 고려해 감축 실적의 20%를 인정한다.

▲두류, 조식료, 가루쌀, 옥수수, 깨 등 '25년도 하계 전락작물·경관작물 직불제'에 참여한 신규 농지를 대상으로 감축을 인정한다.

▲지자체 지원 사업 등을 활용해 전락·경관작물 및 품목(녹비작물 포함)을 재배하는 경우 감축을 인정한다. 해발 400m 이상 준고랭지나 계단형 논 등 조건이 불리한 지역은 밭작물 전환을 적극 유도하며 지자체에는 해발고도 100m 이상 논 면적 자료를 제공해 감축 계획을 지원한다.

▲앞선 4가지 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잔여 면적은 휴경(부분 휴경 포함) 방식으로 감축을 이행한다.

농식품부는 인센티브 중심의 정책을 보다 강화해 지자체와 농업인 참여를 독려할 계획이다.

벼에서 타작물 재배로 전환하는 농가를 지원하기 위해 전락작물·친환경 직불금 지원을 전년 1,865억원에서 금년 2,440억원으로 확대한다.

논에 타작물을 재배하기 위한 배수개선(25년 신규 10지구), 논 범용화 등 타작물 생산 기반 지원도 확대한다. 콩·가루쌀 수매 비축, 식품기업과 연계한 전락작물의 제품개발·판촉 등 유통·소비 기반도 지원한다.

또한 지자체를 통해 자율적으로 타작

농촌진흥청,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최우수기관 선정

농촌진흥청(청장 권재한)은 행정안전부와 국민권익위원회가 공동으로 주관한 '2024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에서 2년 연속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민원서비스 종합평가는 중앙행정기관과 광역·기초지자체, 시도교육청 등 모두 307개 기관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민

원 행정 전략체계, 개별 민원 처리 실태 및 국민신문고 민원 만족도를 종합 평가해 순위에 따라 5개 등급(가~마)으로 구분한다.

농촌진흥청은 지난해에 이어 이번 평가에서도 최고 등급인 '가' 등급을 받으면서 민원서비스 수준의 우수성을 입증했다. 특히 민원 행정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기관장 대내외 활동과 민원 애로사항에 대한 제도개선, 국민신문고 민원처리 및 민원 만족도 부문 등에서 고루 좋은 평가를 받았다.

권재한 농촌진흥청장은 "국민이 만족하는 고품질 민원 서비스를 실천한 점의 노력이 빛을 발한 결과"라고 밝혔다. /최준호 기자

전주우림중학교, 2025년도 적십자 특별회비 전달

대한적십자사 전북특별자치도지사(회장 이선홍)는 전주우림중학교(교장 서정배)가 도내 취약계층을 위한 인도주의 활동에 써달라며 2025년도 적십자 특별회비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서정배 교장은 "지난해 학교 축제에서 우림중학부모회와 학생들이 부스 운영으로 모금된 금액이라 더 뜻깊다"며, "학



교 구성원 모두의 정성이 담긴 금액이 필요한 곳에 적절히 사용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전주 우림중은 지난 2018년 적

십자 희망나눔천사학교 가입을 통해 기부금 동참했으며, 바자회 수익금 기부 등 나눔문화 확산에 앞장서고 있다.

/최준호 기자

전북교육청, 첫 시행 ‘학교자율시간’ 활성화 지원

올해 초등학교 3·4학년 대상 시행… 현장 지원자료 보급·교육지원청별 학교자율시간 운영 지원 연수 진행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이 올해 처음 시행되는 ‘학교자율시간’ 활성화를 위해 소매를 걷어붙였다. 전북교육청은 올해 초등학교 3~4학년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학교자율시간을 위해 다양한 자료를 보급하고 역량 있는 강사를 지원한다고 지난 5일 밝혔다. 학교자율시간은 지역과 학교의 여건 및 학생의 필요에 따라 교과 및 창의적 체험활동 일부 시수(3~4학년 운영 시 29시간 이상, 5~6학년 운영 시 32시간 이상)를 확보해 국가 교육과정(교육부 고시)에 제시된 교과 이외에 새로운 과목이나 활동을 운영하는 학생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 시간이다. 학교별로 3~4학년 올해부터, 5~6학년은 내년부터 시행된다. 전북교육청은 학교자율시간의 성공적 운영을 위해 다양한 지원 정책을 펼친다. 우선 학교자율시간 현장 지원자료 ‘학

교자율시간 전문가 되기 매뉴얼’과 ‘학교자율시간 활동 모음(12개 주제, 각 15~16차시)’을 제작해 이달 중 도내 초등학교에 보급할 예정이다. 자료에는 학교자율시간 운영을 위한 과목 및 활동 설계·운영 방법 등을 실습 형태로 자세하게 담았다. 학교자율시간 관련한 교육과정 설계안, 승인 신청서, 자체확인 체크리스트, 설문지 등 각종 서식도 포함하고 있어 교사들의 업무 경감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전북교육청은 이와 함께 역량 있는 강사단도 구성해 교육지원청별 학교자율시간 운영 지원 연수에 나선다. 이날 분청 2층 강당에서 강사단 역량 강화 연수 및 협의회를 진행했다. 이를 통해 깊이 있는 내용과 강의 방법을 익힌 강사들은 14개 교육지원청에서 현장 교사 눈높이에 맞는 맞춤형 연수를 지원하게 된다. /최성민 기자

유·초·특수교사 임용시험 합격자 발표

총 167명… 유 51명·초 104명·특수(유) 2명·특수(초) 10명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2025학년도 공립 유치원·초등학교·특수학교(유·초)교사 신규임용시험 최종합격자를 지난 5일 오전 10시 도교육청 누리집(www.jbe.go.kr)을 통해 발표했다. 최종합격자는 총 167명으로 유치원 51명(일반 50명·장애 1명), 초등학교 104명(일반 102명·장애 2명), 특수유치원 2명, 특수초등 10명(일반 9명·장애 1명)이다. 개인별 합격 여부와 성적은 지난 5일 오전 10시부터 오는 10일 오후 6시까지 온라인교직원채용시스템(https://edurecruit.jbe.go.kr)에서 본인 인증 후 조회 가능하다. /최성민 기자

전북대학교, 세계 기초과학 분야 선도 연구자 모인다

G-랩스 사업단, 첫 국제포럼 개최… 영국 옥스퍼드대학 로버트 테일러 교수 등 국내외 선도 연구자 초청

전북대학교 G-랩스 사업단(사업단장 김희선)이 국내외 기초과학 분야 선도 연구자를 초청해 첫 번째 국제포럼을 오는 6일과 7일 양일간 전북대 인터내셔널센터 동행홀에서 개최한다. 전북대는 이번 국제포럼을 통해 국내외 우수 연구자들에게 교류 기회를 제공하고 물질·에너지 분야를 선도할 국제 공동 연구 확대를 위한 발판을 제공하고자 한다. 전북대 G-랩스 사업단은 이러한 국제포럼을 매년 정례화해 지속 가능한 기초과학 분야 연구 경쟁력 강화로 이어갈 계획이다. 이번 포럼에서는 세계적 석학들이 참여하여 각 분야의 최신 연구 동향을 공유한다. 영국 옥스퍼드대학교의 로버트 테일러(Robert Taylor) 교수는 ‘페로브스카이트 양자점’을 이용한 단일 광자

발생기 개발을 통해 0차원 구조의 새로운 광학적 응용 가능성을 제시한 연구 성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포럼에서는 전북대 교수진들의 강연도 이어진다. G-랩스 사업에 참여하는 김대위 교수(자연과학대학 생명과학과) 등 15명의 전북대 G-랩스 사업 참여 교수들은 각각 자신이 연구하는 기초과학 분야에 대한 성과와 연구 동향을 발표하며 기초과학 연구의 중요성과 발전 방향에 대해 함께 논의할 예정이다. 전북대 G-랩스 사업단은 이번 포럼을 시작으로 기초과학 분야 연구자들이 글로벌 연구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각국의 연구 성과를 공유하며 새로운 공동 연구의 기회를 모색하는 장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 /최성민 기자

전주대 박진배 총장, 하계올림픽 전북 유치 챌린지 동참

전주대학교 박진배 총장이 ‘2036 하계 올림픽 전북 유치’를 지원하는 ‘GBCH 응원 릴레이 챌린지’에 동참했다. 먼저 ‘GBCH’는 ‘Go Beyond, Create Harmony(모두의 한계를 넘어, 새로운 조화)’의 앞 글자로 2036 하계올림픽 전북 유치 구호를 뜻한다. 박진배 총장은 지역 주민의 올림픽 개최 열망과 지지가 하계올림픽 유치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기에, 다양한 도민의 참여를 확산시키고자 호원대학교 강희성 총장의 지목을 받아 이번 챌린지에 동참했다. 이미, 전주대학교는 2036 하계올림픽 전북 유치를 위한 적극적인 지원을 이어왔다. 지난해 12월 말, 전주대 태권도 시



범단 ‘싸울아비’는 2036 하계올림픽 전북 유치를 지원하고 태권도를 통해 전북 지역 문화와 관광 산업을 선도하기 위한 지역 특화 태권도 공연을 선보였다. /최성민 기자



통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네트워크 구축 성과, 시니어 계층의 과학문화 요구도 조사 등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유수창 새만금창의융합센터 센터장은 “이번 우수 등급 선정은 전북과학문화

거점센터에 관심을 갖고 애써 주신 분들 덕분에”이라며 “올해에도 전북의 과학문화 확산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최성민 기자

전북대 치과대학 20기 동창회, 4천만 원 기부… 모교에 감사의 마음 전달

전북대 치과대학 졸업생 동창회 매년 기부 동참… 기부금 치과대학 연구·인재 양성·교육 환경 개선 등 활용

전북대학교(총장 양오봉) 치과대학 20기 졸업생들이 치과 대학 발전을 기원하며 4천만 원의 발전기금을 기부했다. 이번 기부는 졸업생들이 지난 20년간 치과 의사 또는 교수로서 걸어온 길을 되돌아보며 자신들을 길러준 모교에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자 마련됐다. 전북대 발전지원재단은 지난 4일 대학본부 총장실에서 양오봉 총장과 대학 주요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발전기금 기증식을 열고, 기부에 대한 감사의 의미를 담은 감사패를 전달했다. 전북대 치과대학 졸업생 동창회는 매년 기부에 동참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19기 졸업생들이 십시일반 기금을 모아 기부에 참여한 바 있다. 기부금은 전북대 치과대학 ‘J-dental Fund’로 지정해 앞으로 치과대학 연구 및 교육 환경 개선과 인재 양성을 위해 쓰일 예정이다. /최성민 기자



국립군산대학교, 지역과학문화 역량 강화 연차평가 ‘우수’ 등급 받아

국립군산대학교 새만금창의융합센터(센터장 유수창)는 2024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전북특별자치도가 지원하고 국립군산대학교 새만금창의융합센터가 운영하는 ‘지역과학문화 역량 강화 사업’ 평가에서 ‘우수’ 등급에 선정됐

다고 밝혔다. 이번 평가는 전국의 지역과학문화거점센터 12곳을 대상으로 사업계획, 운영성과, 예산 집행 등 다양한 항목에 걸쳐 이루어졌다. 전북과학문화거점센터는 전북 지역의 특색이 잘 반영된 점, 다양한 지역기관들과의 협업을

거점센터에 관심을 갖고 애써 주신 분들 덕분에”이라며 “올해에도 전북의 과학문화 확산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최성민 기자



정읍시 급식관리지원센터, 맞춤형 지원 강화

정읍시 어린이·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이하 센터)가 올해로 개소 10주년을 맞아 더 안전하고 건강한 급식 환경 조성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한다.

전북과학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위탁 운영하고 있는 센터는 영양사가 없는 100인 미만 어린이 급식소와 50인 미만 노인·장애인 시설 등 사회복지 급식소를 대상으로 체계적인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센터는 안전한 급식 환경 조성을 위해 정기적인 현장 방문 컨설팅을 실시하고 위생 점검과 영양 상담을 통해 식중독 예방과 균형 잡힌 식단 구성을 지원한다.

또한, 조리원과 급식 담당자를 대상으로 위생·영양 교육을 정기적으로 진행해 급식소 관계자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있다.

아울러, 대상자의 특성을 고려한 영양 식단을 제공하고 계절 식재료를 활용한 건강한 메뉴를 개발·보급한다.

특수 식단이 필요한 경우에는 맞춤형 식단을 지원해 개인별 건강관리가 가능하도록 돕는다.

이와 함께 급식소 관계자와 학부모를 대상으로 건강한 급식 문화 확산을 위한 캠페인과 홍보 활동도 활발히 추진하고 있다.

센터는 유관기관과 협력해 지속적인 지원과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취약계층의 안전한 급식 환경 조성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할 계획이다.

/정읍=김정인 기자

군산시, 2026년 해양수산 사업 신청 접수

군산시가 수산업·어촌 및 식품산업 경쟁력 강화와 활력있는 어촌 조성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지난 5일 시는 경쟁력 있는 수산업, 어촌 활력 도모, 수산식품산업 전략적 육성을 위해 오는 3월 5일까지 '2026년도 정부지원 수산업·어촌·수산식품산업 지원사업'을 신청받겠다고 밝혔다.

이번 신청은 ▲친환경양식어업 육성 ▲친환경 에너지 절감장비 보급 ▲친환경 어구 보급 ▲어촌발전기반 조성 ▲수산물 가공·유통시설 육성 등 수산업·어업·어촌분야 정부 지원사업 등이다.

신청 대상은 어업인, 어촌계, 영어조합법인, 어업회사법인, 수산물 식품가공업자 등 사업지침에 지원 자격이 명시된 군산시민으로 군산시 어업정책과, 수산산업과를 방문해 신청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접수된 민간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사업계획의 적정성과 타당성 검토 등 자체심의를 통해 정부자금 지원대상·범위를 결정, 전북특별자치도 및 해양수산부에 국가예산 등을 신청할 계획이다.

개별 수산분야 지원 사업별로 자세한 내용은 군산시 누리집 www.gunsan.go.kr, 해양수산부 누리집(www.mof.go.kr) / 정보공개·사전정보공표·국고보조금정보·보조금사업정보)를 참고하면 된다.

/군산=지송길 기자

익산시 “가축분뇨 부속도 무료로 검사 받으세요”

익산시는 축산 농가를 대상으로 가축분뇨 퇴·액비 부속도 검사를 연중 무료로 지원한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가축분뇨 부속도 검사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축분뇨 배출 신고농가는 연 1회, 허가 대상은 연 2회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이에 시는 축산 농가의 분석 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020년부터 연간 1,000여점의 가축분뇨 부속도 검사를 무료로 제공해 왔다.

부속도 검사 신청자는 퇴비 더미 중 5~10군데에서 2kg 이상 채취해 균일하게 혼합 후 500g 가량을 정해진 시료 봉투에 담아 농업기술센터 내 가축분뇨분석실에 방문·의뢰하면 된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기술보급과 가축분뇨분석실(063-859-4984, 4985)로 문의하면 된다.

/익산=최준호 기자

군산시, 영세소상공인 지원 나선다

영세소상공인 임대료·카드수수료 지원사업 신청 접수… 임대료 30만 원 지원

군산시가 경기 불황으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소상공인 지원에 나선다.

시는 오는 10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영세소상공인 임대료 및 카드수수료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기존 사업인 영세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도 작년보다 지원금액을 20만원 늘려 시행할 계획이다.

올해 총사업비 24억 원 규모의 영세소상공인 임대료 지원사업은 2023년 연매출 3억원 이하 영세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30만 원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영세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은 전년도 연 매출 3억원 이하 영세 소상공인에게 전년도 카드 매출액의 0.5%에 해당하는 카드수수료를 최대 50만 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 총사업비는 16억 5500만 원이다.

다수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카드수수료 지원사업은 1인당 최대 2개 사업체까지 신청 가능하며, 임대료 지원사업은 1개 사업체만 신청 가능하다.

신청을 원하는 소상공인은 오는 10일부터 군산시장권활성화재단 누리집에 접속(군산시청 누리집 접속 통해 신청 가능)하다. 신청은 온라인으로 받으며,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등 증빙서류를 첨부하면 된다.

신청 첫 주는 혼잡을 피하고자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으로 5부제를 시행한다. ▲2월 10일에는 끝자리 3·8 ▲11일에는 4·9 ▲12일에는 0·5 ▲13일에는 1·6 ▲14일에는 2·7이다. 15일부터는 5부제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다.

영세소상공인 임대료 및 카드수수료 지원사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 누리집 고시·공고란을 참고하거나 시청 일자리경제과(063-454-2680)로 전화하면 된다.

/군산=지송길 기자

익산시, 다이로움 스마트 안전벨리지 구현

CCTV 통합관제센터… 익산안심이앱·AI 기반 CCTV영상 검색·지능형 선별 관제 시스템 도입

익산시가 인공지능(AI) 첨단 기술을 활용해 안전도시를 조성한다.

익산시는 지난 5일 정례브리핑을 열고 ‘다이로움 스마트 안전벨리지’ 조성사업이 올해부터 추진을 본격화한다고 밝혔다.

시는 앞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모사업에 선정되며 스마트 안전벨리지 조성사업에 대한 국비 5억 6,000만 원을 확보한 바 있다. 이에 시비 2억 4,000만 원을 더해 총 8억 원을 이 사업에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스마트 안전벨리지’는 CCTV통합관제센터에 첨단 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를 스마트도시통합플랫폼과 연동해 도시 안전망을 강화하는 사업이다.

주요 사업은 ▲익산안심이앱서비스 ▲인공지능(AI) 기반 CCTV 영상 검색 시스템 ▲지능형 선별 관제시스템이다.

우선 ‘익산안심이앱’은 여성과 아동 등 취약계층의 안전귀가를 돕는 모바일 서비스다. 이 앱을 켜 상태로 귀가 시 위급 상황임을 알리면 신고자의 위



치가 관제센터와 보호자에게 자동으로 전송된다.

‘인공지능 기반 CCTV영상 검색 시스템’은 차매환자와 아동 실종 시 인상착의와 사진 정보를 입력하면 익산시 전역에 설치된 CCTV영상을 분석해 실종자의 이동 경로와 현위치를 신속하게 추적하는 시스템이다.

‘지능형 선별 관제 시스템’은 인공지능 영상분석 기술로 객체를 인식하고 분석해 화재, 쓰러짐 등 사건 사고 발생 시 신속하게 상황을 감지하는 사업이

다. 해당 영상을 관제센터 상황판에 자동으로 표출해 위급상황을 관제요원이 모니터링하고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한다.

시는 우범지역이나 여성 안심 귀갓길부터 지능형 선별 관제 시스템을 우선 도입하고 점차 시 전체로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시는 이달부터 오는 9월까지 시스템을 구축하고, 10월 한 달 동안 시범운영을 거친 뒤 11월부터 본격적으로 서비스를 개시할 방침이다.

/익산=최준호 기자

정읍시, 전동보장구 사용자 보험 지원 강화

제3자 손해 사고 보상 최대 3천만 원 지원·시청·주민센터 등 16개소 급속충전기 운영·수리비 지원

정읍시가 전동보장구 사용자들의 심리적·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자동 가입되는 배상책임보험 지원과 함께 다양한 이동 편의 지원책을 강화하고 있다.

이번 보험 지원은 전동보장구(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를 이용하는 노인과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이동권 제한을 방지하고 사고로 인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다.

보험 지원 대상은 정읍시에 주소를 둔 전동보장구 사용자로,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된다. 보장 내용은 전동보장구 사용 중 발생한 사고로, 제3자에게 입힌 대인·대물 손해에 대해 사고당 최대 3,000만원까지 보장된다. 본인 부담금은 5만원이며 보험금 청구는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전동보장구 보험 전용상담센터(☎ 02-2038-0828)를 통해 직접 신청하면 된

다. 보험기간은 오는 12월 31일까지다.

시는 추가적인 지원도 실시하고 있다. 시청과 읍면동 주민센터, 장애인복지관 등 16개소에 ‘전동보장구 급속충전기’를 설치·운영 중이며 전동보장구 수리 비용도 지원한다. 수급자·차상위계층의 경우 수리비의 90%, 일반 장애인에게는 50%를 지원하며 1인당 총 3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이 이뤄진다.

/정읍=김정인 기자

‘한계 넘어 더 큰 도전으로’ 김관영 도지사, 군산시 방문

군산항·군산새만금 신항 원포트 지정 관련 건의… “시기에 맞춰 자문위원회에 결과를 보내겠다”

민생현장에서 민심을 듣고, 도정의 답을 찾기 위해 시군 방문길에 오른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그의 고향인 군산시를 지난 4일 방문했다.

지난 3일 전주시를 시작으로, 세 번째 방문지로 군산을 찾은 김 지사는 군산시의 역점·주요현안 업무보고를 통해 지역의 분위기와 여론을 경청했다.

이후 시청 대강당에서, 시민 500여 명이 참여한 도민과의 대화에서 ‘도전경성의 초심, 도민약속의 실천 초지일관’이라는 주제로 도정 운영 방향에 대한 특강과 질의응답이 이어졌다.

특히 군산시는 이번 도민과의 대화에 지역 핵심 현안인, 군산항·군산새만금 신항 원포트(One-Port) 지정 관련 내용을 도에 건의하였다.

질의자로 나선 군산시의회 서은식 의원은 “자문위원회에서 새만금신항을 군산항과 원포트로 지정하는 것이 타당하는 결론을 낸 것이 맞는가.”라는 질문에 이어 “전북도는 자문위원회의 결과를 해수부 추가요청 없이 자체적으로 제출할 계획이 있는지와 공개할 계획이 있다면 공개 시점이 언제인지 명확히 밝혀달라.”라는 질문을 던졌다.

이에 김관영 도지사는 “지금 현재 새만금신항이 관할권 분쟁의 대상으로 되어 있지 않지만, 훗날 분쟁의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원포트, 투포트가 군산시와 김제시의 중요한 문제가 될 수 있다. 따라서 무역할 지정을 위한 중앙항만정책심의회가 개시되면 시기에 맞춰 자문위원회에 결과를 보



내겠다.”라고 답변했다.

김관영 도지사는 “이번 방문에서 많은 걸 배우고 간다.”라며, “전북의 더 큰 도약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와 소중한 의견을 부탁드리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군산=지송길 기자



정읍시, 왕솔밭 공동체정원 텃밭 분양

‘도심 속 힐링’… 친환경 농업 체험·여가활동 공간 마련

정읍시가 다가오는 봄, 자연을 가꾸고 이웃과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왕솔밭 공동체정원(내장상동 소재) 텃밭 분양 모집을 실시한다.

왕솔밭 공동체정원 내 조성된 텃밭은 도시민들이 친환경 농업을 체험하고 건강한 여가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마련된 공간이다.

이번에 분양되는 텃밭은 총 61개소로 일반 시민에게 51개소,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사회적 배려 대상자에게는 10개소의 배려텃밭이 제공된다.

텃밭 분양 신청은 오는 11일부터 19일까지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

복지센터를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선정자는 컴퓨터 전산 추첨을 통해 공정하게 결정된다.

당첨 결과는 오는 21일 시 홈페이지 공고문과 개별 문자로 통보된다.

텃밭 분양 당첨자는 3월 4일부터 12월 12일까지 약 9개월간 경작권이 주어지며 연간 사용료는 개소당 1만 840원이다.

텃밭은 1개소당 8㎡(약 2평) 크기로 시민들은 이곳에서 직접 퇴비를 뿌리고 원하는 모종을 심어 가꿀 수 있어 도시 속에서도 손쉽게 농업을 체험할 수 있다.

/정읍=김정인 기자

정읍 삼성푸드, 노후시설 개선사업비 3억 6천 확보

전북특별자치도 ‘2025년 도축장 노후시설 개선사업’ 공모 선정

정읍시가 전북특별자치도의 ‘2025년 도축장 노후시설 개선사업’ 공모에 선정되며 도비 3억 6,000만 원을 확보했다. 이번 사업으로 도축장의 위생 관리 강화와 경영 안정성을 동시에 꾀할 전망이다.

이번 사업은 2025년 신규사업으로 2030년까지 매년 도내 소규모 도축장 1개소씩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도축 단계부터 철저한 위생 관리를 강

화하고 축산물의 안전성 제고와 도축장 경영 안정성을 높이는 것이 목표다.

지역 내 도축장인 삼정푸드는 군산, 남원 등과의 경쟁 끝에 최종 선정됐다. 이 사업을 통해 삼정푸드는 계류장, 예냉실, 작업실, 폐수처리시설 등 노후 시설 개선과 도축 장비 교체에 지원받아 운영 효율성과 위생 수준을 대폭 향상시킬 예정이다.

/정읍=김정인 기자

군산해경, 승선원 변동 미신고 어선 2척 적발

군산해양경찰서(서장 박상욱)는 어선에서 승선원이 변동 되었음에도 이를 신고하지 않고 출항한 선박 2척을 적발했다고 지난 5일 밝혔다.

지난 2일 오전 9시 25분 군산시 옥도면 연도 남동쪽 5km 해상에서 승선원 2명이 타고 출항한 것으로 신고된 어선 A호(0.89톤, 연안복합)를 발견하고 검문결과 선장 1명만이 있는 것을 확인하고 어선안전조업법 위반 혐의(승선원변동미신고)로 적발했다.

또한 같은날 오전 9시 50분 조업 중 이던 B호(0.89톤, 연안복합)의 검문결과, A호와 마찬가지로 승선원 2명이 신고되었으나 선장 1명만 타고 출항해 같은 법 위반으로 적발했다.

승선원 변동 신고는 사고가 발생할 경우 신고된 인원과 실제 승선한 인



원이 일치하지 않아 구조에 혼선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어선안전조업법에 따라 어선의 승선원이 변동되었을 때에는 반드시 관계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1차 경고, 2차 10일 어업정지, 3차 15일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군산=지송길 기자

익산시, 교원 치유헤링 프로그램 1차 운영 성료

익산시가 교육발전특구 시범 선도지역 사업으로 추진한 ‘1차 교원 치유헤링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시는 지역 교원의 정서적 안정과 스트레스 관리를 통해 건강한 교육 환경을 조성하고자 지난 4일부터 5일까지 1박 2일의 일정으로 교원 치유헤링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익산시 교육발전특구 거버넌스 조직인 교육공동체지원센터 주관으로 전라남도 장흥통합의료병원(전남 마음건강치유센터)에서 진행했다.

주요 활동으로 차츰명상, 아로마 치료, 산림 치유, 한방 교육 등 다양한 체험이 운영돼 참가자들의 심신 회복을 지원했다. 특히, 참가자들은 스트레스

검사와 통합의학 치료를 통해 건강 상태를 점검하고, 맞춤형 치유 활동에 참여할 수 있어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시는 1차 프로그램의 운영 결과를 토대로 오는 2차(2월 6~7일), 3차(2월 20~21일) 프로그램을 더욱 내실 있게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교원의 심리적 안정과 정서적 회복을 더욱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한 교사는 “교육 현장에서 쌓였던 스트레스를 해소할 기회가 필요했는데, 자연 속에서 명상과 치유를 경험하며 몸과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다”며 “앞으로도 이러한 프로그램이 지속적으로 운영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익산=최준호 기자

남원 달빛어린이병원 국비 확보 성과

특례 발굴, 보건복지부 ‘소아 야간·휴일 진료기관 운영 지침’에 기준 신설 반영
공공산후조리원 ‘산후케어센터 다운’ 연계, 남원의료원 지정·운영 추진

남원시가 보건복지부 ‘소아 야간·휴일 진료기관(달빛어린이병원) 운영 지침’에 인구감소지역이면서 응급의료 취약지역 지원기준 신설로 국비 3억2천만원을 확보해, 달빛어린이병원 지정·운영에 탄력을 받게 됐다.

남원시는 민선8기 공약사업으로 남원의료원 인근에 건립 중인 공공산후조리원 ‘산후케어센터 다운’이 올해 하반기 개원 예정이나, 평일 야간과 휴일에도 소아 환자를 진료할 수 있는 달빛어린이병원으로 지정된 병원이 없어, 남원의료원을 달빛어린이병원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모색해왔다.

남원시는 지난해 전국 공공의료기관

현황과 응급의료 취약지이면서, 인구감소지역 98개 시군의 소아 야간 진료 실태를 자체 분석해 ‘달빛어린이병원 지원 지침’ 내 인구감소지역 지원기준 신설’ 특례를 발굴해 지역 국회의원인 박희승 국회의원 등과 함께 보건복지부 설득 활동을 전방위적으로 펼쳐 지침 개정을 통해 국비를 확보하는 성과를 거뒀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2025년 1월 20일 달빛어린이병원 지원 지침을 개정하고 남원시와 같은 응급의료 취약지이면서, 인구감소지역인 78개 시군구는 ‘소아 진료 관심 지역’으로 신규 지정해 운영비의 2배를 지원할 방침이다.

어린이 경증 환자가 야간과 휴일에 응급실에 가면 응급실 진료비용은 8만 원에서 10만 원인 반면 달빛어린이병원의 진료비용은 1만 원에서 2만 원에 불과해 시민들의 의료비 부담이 크게 줄어든 전망이다.

최경식 남원시장은 “의료 격차는 지역의 인구감소와 직결되는 만큼, 지역간 의료 불균형 해소와 공공 의료기관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서는 국비 지원이 필요하다”며 “소아는 물론 산후케어센터의 신생아가 신속하고 안정적인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달빛어린이병원 지정·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남원=정하복 기자

순창군, 연산마을 LPG 소형저장탱크 본격 공급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에 총 13억 투입…자동검침 시스템 도입·난방비 30% 절감 효과

순창군이 지난 4일 구림면 연산마을에서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 준공개통식을 개최하고 본격적인 연료 공급을 시작했다.

이번 사업은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는 농어촌 지역 주민들의 연료 사용 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주민 복지 증진을 위해 추진됐다.

이날 개통식에는 최영일 순창군수, 손종석 순창군회의의장, 연산마을 주민 150여 명을 비롯해 군 관계자 등 1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과보고, 감사패 전달 순으로 진행됐다.

이번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은 총사업비 13억원이 투입된 대규모 프로젝트로, 연산마을 전체 139가구 중 91%에 해당하는 127가구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군은 공급 배관 3.69km를 매설하고, 소형 저장용 탱크 27기를 설치해 안정적인 가스 공급 인프라를 구축했다.



순창군은 4일 구림면 연산마을에서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 준공개통식을 개최하고 본격적인 연료 공급을 시작했다.

특히, 이 사업은 지난 2023년 10월 마을 주민들의 자발적인 신청으로 시작됐으며,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구림체육관 뒤편을 소형저장탱크 설치부지로 선정했다. 이후 한국LPG사업관리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지난해 9월부터 본격적인 공사에 착수해 약 5

개월 만에 사업을 완료했다.

이번 사업의 완료로 연산마을 주민들은 기존 난방유 대비 30% 이상의 연료비 절감 효과를 누릴 수 있게 됐다. 또한, 자동검침 시스템 도입으로 요금 정산의 투명성도 크게 높아질 전망이다.

/순창=박지현 기자



순창 (주)지티지푸드, ‘짜먹는 간편 밥’ 출시

‘짜밥’ 삼각김밥 불편 해소…지역농산물 원재료로 농가 기여

순창군 쌍암농공단지의 신성장 기업 ㈜지티지푸드가 혁신적인 신제품 ‘짜밥’을 출시해 눈길을 끌고 있다.

기존 삼각김밥의 불편함을 해소한 ‘짜밥’은 손쉽게 짜서 먹을 수 있는 독특한 포장 디자인으로 소비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특히 전주 한옥마을 오픈 행사에서는 연일 완판 행렬을 기록하며 현지 관광객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이러한 성공은 단순한 기업의 성장을 넘어 지역 경제 활성화로

이어지고 있다. 실제로, ㈜지티지푸드는 순창 지역에서 생산되는 양파, 대파 등 신선한 농산물과 품질 좋은 쌀을 ‘짜밥’의 원재료로 사용함으로써, 지역 농가의 안정적인 소득 창출에 기여하고 있다.

특히, ㈜지티지푸드는 올해 하반기에 20억 원을 투자해 생산라인을 확충하고, 2026년에는 ‘짜밥’ 전용 공장 증축을 통해 식육가공업과 식품제조업을 아우르는 종합 식품기업으로 도약할 계획이다.

/순창=박지현 기자

순창군, 65세 이상 군민 백내장 수술비 지원사업 추진

순창군이 어르신들의 시력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백내장 수술비 지원사업’을 적극 추진한다.

이번 지원사업은 65세 이상 군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고 건강한 노후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 자격은 순창군에 1년 이상 거주한 65세 이상 군민 중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주민이다.

지원 금액은 한쪽 눈 수술 시 25만원, 양쪽 눈 수술이 필요한 경우 최대 5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수술비와 검사비 등 환자 본인부담금에 해당하는 의료비가 지원 대상이다.

신청 시에는 최근 1개월 이내 발급된 진단서(소견서),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주민등록등본을 구비해 순창군보건의료원을 방문하면 된다. 단, 지원을 희망하는 군민은 반드시 수술 전 사전 문의를 통해 자격요건을 확인해야 한다.

특히 60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한국실명예방재단을 통해 눈 수술 관련 본인부담금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어, 경제적 부담 없이 수술을 받을 수 있다.

사업과 관련한 상세한 내용은 순창군보건의료원(063-650-5245)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순창=박지현 기자

남원, 평생학습동아리 지원사업 참여자 모집

남원시(시장 최경식)가 자발적 학습 문화 정착과 평생학습 나눔 문화 확산을 위해 오는 10일부터 14일까지 5일간, ‘2025년 남원시 평생학습동아리 지원사업’ 참여자를 공개 모집한다.

평생학습동아리는 학습자들이 자발적으로 모임을 구성하고 정기 학습과 토론을 하는 ‘지역학습공동체’로, 남원시는 매년 평생학습동아리 지원사업을 통해 신규 학습동아리를 발굴하고 학습모임을 위한 강사비를 지원하고 있다.

남원시는 이번 모집을 통해 ▲문화예술, ▲인문교양, ▲시민참여 분야 등 총 25개 내외의 신규 및 기존 동아리의 신청을 받아 심사 기준에 의해 선정된 동아리의 학습활동에 필요한 강사비를 최대 200만원까지 차등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남원시민 5명 이상으로 구성된 월 1회 이상 정기적인 활동을 하는 동아리로, 평생학습을 주된 목적으로 사회적 가치 창출에 적극 노력하는 학습모임이다. 특히 올해부터 지원을 원하는 동아리는 학습동아리의 사회적 역할 강조에 따라 지역사회 환원 활동을 연 1회 이상 계획해야 한다. /남원=정하복 기자

완주군 민생안정지원금 90% 지급 완료…지역경제 ‘훈풍’

완주군이 지역 주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지급한 민생안정지원금이 빠른 속도로 배부되며 높은 호응을 얻고 있다.

5일 완주군에 따르면 지난달 22일부터 시작된 민생안정지원금 지급은 첫날에만 3만 4,369명(약 35%)에게 지급되는 등 순조롭게 진행됐다.

군은 군민들의 편의를 위해 집중 지급 기간을 지정해 마을 경로당과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지원금을 지급하고, 주말에도 배부했다.

집중 지급 기간이었던 지난달 22일부터 26일까지 5일간 총 8만 8,259명(88%)에게 지원금을 지급했으며, 1월 31일까지 약 9만 명에게 지급을 완료해 전체 지급 대상자의 90%에 달하는 270억 원이 지급됐다.

지급된 지원금은 이달 3일 기준 115억 원 정도 사용됐으며, 경기 침체와 물가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계의 부담을 덜어주고, 설 명절 기간 지역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또한,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업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것으로 분석된다.

민생안정지원금의 지급 기간은 오는 3월 31일까지이며, 사용 기한은 6월 30일까지다. /완주=김명곤 기자

완주군, 아동친화상점 ‘아이러브존’ 사업 확대 나선다

‘아동친화 대표도시’ 완주, 아동친화상점 연내 40곳으로 확대…아동권리 인식개선 캠페인도 병행

완주군이 아동과 양육자가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아동친화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아동친화상점 ‘아이러브존’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군은 지난 한 해 동안 아동·청소년 분야에서 5관왕을 달성하고,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최고단계를 인증하며, 아동친화 대표도시의 명성을 입증했다.

아동친화상점 ‘아이러브존’은 완주군 어린이·청소년의회에서 제기된 대표적 아동권리 침해사례인 노키즈존 문제를 아동유무스피드슨사무소에서 아동민원으로 접수해 아동권리모니터링 활동을 통해 검토한 후 아동참여예산 사업으로 편성해 추진했다.

지난해 1월 말 아동친화상점 ‘아이러브존’ 현판식을 계기로 관내 24곳의 음식점 및 카페가 아동친화상점으로서의 시작을 알린 완주군은 올해 안으로 아동친화상점을 40곳으로 늘리고, 적극적인 홍보와 인식개선 캠페인 활동을 병행해 나갈 계획이다.



완주군은 ‘노키즈존’ 등 아동권리 침해사례를 모니터링 활동을 통해 검토한 후 아동참여예산 사업으로 편성해 아동친화상점 ‘아이러브존’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왔다.

최초 인증된 아동친화상점 업소는 산레읍의 THE 다락, 커피한잔, 봉동읍의 새참집, 진소바, 망향비빔국수 완주점, 용진읍의 누에살롱, 카페 실마리, 카페 어울림, 다정레스토랑, 상관면의 카페 애드리브, 이서면의 윤카페, 소양면의 몽펠리에 레스토랑, 소양각, 구이면의

카페 느미, 점시꽃, 우령각시, 고산면의 사계, 포보, 카페 스페인아오라, 소연식당, 운주면의 카페 나마스떼, 화산면의 화산에빵긋, 동상면의 카페 라꼬내쌍스, 경천면의 카페 경천에서의 하루 등 24곳(카페 12곳, 음식점 12곳)이다.

/완주=김명곤 기자

‘수소도시’ 완주, 수소차 보급사업 시작…구매 보조금 지원

수소도시 완주군이 수소경제 활성화와 대기환경 개선을 목표로 2025년 수소차 보급사업을 시작한다. 올해 수소승용차 물량은 상반기 총 30대로, 차량 1대당 3,500만 원의 보조금이 지원된다.

올해 하반기 수소승용차 신모델 출시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도 불구하고, 2025년 1월 20대가 접수돼 물량이 소진돼 완주군은 승용 10대를 추가 공고

했다.

보조금 신청은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진행되며, 신청일 기준으로 1개월 이상 완주군에 주소를 둔 19세 이상 개인이 법인이 지원 대상이다. 구매자는 수소승용차 판매사에 방문해 구매계약을 체결한 후, 보조금 지원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수소차 보급을 확대해

탄소중립 실현과 대기환경 개선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달성하겠다”며 “군민들이 더욱 편리하게 수소를 이용할 수 있도록 충전 인프라 확충에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완주군은 상반기 물량소진 시 추경예산을 확보해 승용 50대 버스 15대를 보급할 계획이다.

/완주=김명곤 기자



완주군의회 김재전 부의장과 최광호 의원이 지역 곳곳을 찾아가 주민들의 목소리를 경청하며 적극적인 민원 해결에 나섰다.

지난달 31일부터 오는 12일까지 봉동·용진읍에서 순차적으로 진행되는 ‘주민과의 소통 간담회’는 지역 현안을 공유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직접 듣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간담회는 지역 주민들과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김재전 부의장과 최광호 의원이 2025년의 주요 정책 방향과 의정 활동 계획을 설명했

다. 특히, 지역 발전을 위한 핵심 사업과 주민 복지 향상 방안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간담회를 통해 ▲경로당 복지 개선 ▲마을 체육시설 확충 ▲도로 보수 ▲가로등 정비 ▲교통시설물 개선과 같은 생활민원 등 약 100여 건의 애로·건의 사항을 접수했다.

두 의원은 주민들의 의견에 깊이 공감하며 주민 생활과 밀접한 불편 사항은 조속한 처리를 약속하고, 시간이 수반되는 건의 사항에 대해서는 집행부 관련 부서와 검토를 통해 중장기적으로 해결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일부 긴급 민원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며,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데 힘썼다.

/완주=김명곤 기자

남원시, 크로마카카메라 갖춘 공유 스튜디오 운영

남원시가 2월부터 누구나 무료로 이용 가능한 ‘공유 스튜디오’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남원시청 지하 1층에 자리잡고 있는 ‘공유 스튜디오’는 방송시설과 크로마카, 조명이 설치돼 있는 스튜디오로, 카메라와 편집 프로그램이 구비돼 동영상 촬영과 편집이 가능한 미디어 제작 공간이다.

남원시는 미디어 제작 스튜디오를 업무에 이용하는 데에 그치지 않고, 공공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미디어 제작에 관심있는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전면 개방 운영을 실시했다.

공유 스튜디오 이용을 위한 예약은 공공개방지원 포털 ‘공유누리’ 누리집



(eshare.go.kr)에서 가능하며 담당자의 승인 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한편, ‘공유누리’는 공공기관이 국민에게 개방하는 시설, 물품 등을 편리하게 검색하고 예약하는 대국민 공공 개방지원 공유서비스 포털로, 공공자원 이용을 원하는 국민은 누구나 공유누리 누리집을 비롯한 앱을 통해 검색·확인·예약할 수 있다.

/남원=정하복 기자



전주시여성단체협의회, 지역 노인 100여 명에 떡국·다과 대접

전주시여성단체협의회(회장 은은아)는 5일 우아동 좋은교회에서 협의회 회원 등 5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지역에 거주하는 노인 100여 명을 대상으로 사랑의 떡국 나눔 행사를 진행했다.

이날 회원들은 2025년 정기총회를 마친 후, 새해를 맞아 정성껏 준비한 떡국과 다과를 대접했다.

회원들은 또 참석한 노인들의 안부를 일일이 확인하며 말벗이 돼주고, 식사 후에는 작은 선물도 함께 전달했다.

은은아 전주시여성단체협의회 회장은 “작은 나눔이지만 우리 회원들의 사랑이 듬뿍 담긴 음식을 맛있게 드시길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어려운 이웃들을 위한 지속적인 나눔 행사로 지역 발전에 기여하는 단체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전주시 관계자는 “항상 도움이 필요한 곳에 앞장서 주시는 전주시여성단체협의회 회원분들께 감사드립니다”면서 “앞으로도 협의회와 이웃사랑 실천이 선한 영향력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영태 기자



(유)나눔푸드, 진안사랑 장학재단에 3백만원 쾌척

(유)나눔푸드(대표 김지훈)가 5일 진안군 지역의 밝은 미래를 응원하며 진안사랑장학재단(이사장 전춘성)에 장학금 300만원을 기탁했다.

(유)나눔푸드는 진안을 연장리에 위치한 사회적 기업으로 취약 계층에게 사회 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며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 특히 2021년부터 매년 꾸준한 장학금 기탁을 이어가며 지역 사회에 훈훈한 감동을 전하고 있기도 하다.

기탁식에서 김지훈 대표는 “지역의 젊은 인재들이 꿈을 키워나가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 싶었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에 전춘성 이사장은 “나눔푸드 김지훈 대표의 따뜻한 마음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며, “기탁해주신 장학금은 진안군의 미래를 빛낼 인재 양성에 소중하게 사용하겠다”고 답했다.

/전안=전길빈 기자

김제시의회서백현의장,지방의정봉사대상수상

제7대부터 제9대까지 3선 의원, 헌신적 의정활동 및 주민복지 향상 공로 인정

김제시의회 서백현 의장이 지난 5일 충북 청주 그랜드플라자 청주호텔에서 열린 2025년도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정기총회에서 ‘대한민국지방의정봉사대상’의 영예를 안았다.

대한민국지방의정봉사대상은 지방자치 발전과 주민 삶의 질 향상에 뛰어난 공헌을 한 지방의원에게 수여되는 권위 있는 상이다.

서백현 의장은 제7대부터 제9대까지 3선 의원으로서 보여준 헌신적인 의정활동과 지역사회



김제시의회 서백현 의장이 지난 5일 2025년도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정기총회에서 ‘대한민국지방의정봉사대상’의 영예를 안았다.

발전에 대한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자로 선정됐다.

특히 서 의장은 오랜 공직 경험을 바탕으로 주민 복지 향상에 괄목할 만한 성과를 이뤄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서백현 의장은 “이번 수상을 계기로 더욱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이어 “2025년에도 시민의 행복이 최우선이 되는 의회를 만들어가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수상 소감을 밝혔다.

/김제=온봉기 기자

초록우산 전북지역본부-두산퓨얼셀, 2천2백만 원 기부

익산 가족돌봄아동 가구에 전달...만 18세 될 때까지 가정 2세대에 지원

익산시는 초록우산어린이재단 전북지역본부(본부장 구미희)와 두산퓨얼셀(대표 이두순)이 시청을 방문해 성금 2,200만 원을 기탁했다고 5일 밝혔다.

이날 후원된 성금은 수혜아동이 만 18세가 될 때까지 가족돌봄 아동 가정 2세대에 지원될 예정이다.

가족돌봄아동은 보호자의 질병이나 장애 등을 이유로 보호받아야 할 나이에 오히려 돌봄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아동을 뜻한다.

두산퓨얼셀과 초록우산전북지역본부는 이번 기부를 계기로 지속가능한 사회공헌 활동을 위한 상호협력 협약을 체결했다.

이를 통해 지역사회와 아동을 위한 지원을 이어갈 예정이다.

박준영 두산퓨얼셀 전무는 “후원을 통해 가족돌봄아동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고 전했다.

/익산=최준호 기자



완주군 이성훈 홍보대사, 지자체 홍보 특별상 수상

완주군 이성훈 홍보대사가 ‘2025 대한민국 지자체 홍보대상’에서 홍보대사 부문 특별상을 수상했다.

이성훈 PD는 완주군 봉동읍에서 생강농사를 짓는 청년농부로, 2018년부터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자연다큐 만경강 TV’를 통해 주로 만경강에 서식하는 동·생물 모습을 직접 촬영해 완주의 자연 생태를 알려왔다.

특히 이 PD는 잊혀가는 지역의 역사를 기록, 구독자들의 높은 호응을

이끌어내면서 높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입증하듯 얼마 소를 찾아 낚선길 15km를 걸어 집으로 돌아온 송아지’ 이야기는 조회수 11만회 이상을 기록했다.

유희태 완주군수는 “앞으로도 만경강의 중요성을 알리고 그곳에 서식하는 동·생물을 기록해 자연과 인간이 공존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데 노력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완주=김명곤 기자



고창군 유병학·최숙자 부부, ‘새농민상’ 수상

대성농협(조합장 박윤규)은 지난 4일 조합원 유병학·최숙자씨 부부가 ‘이달의 새농민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새농민상’은 농협중앙회가 1965년부터 전국 농축산인을 대상으로 자립, 과학, 협동의 3대 정신 실천에 앞장서며 농가소득 증진과 과학영농 및 지역농업 발전에 이바지한 농업인 부부에 수여하고 있다.

유병학·최숙자씨 부부는 고창군 대산면 일대에서 무, 배추 등 원예

작물을 비롯하여 논콩, 조식료 등을 재배하는 농가로 어린시절부터 30여년간 농업을 이어오고 있으며, 지역의 청년농부들에게 농업지식과 경험을 조언해주는 등 청년농업인에게 희망과 활력을 불어넣어주고 있다.

유씨 부부는 “새농민회 회원으로서 농업경영 노하우를 청년농업인에게 알릴뿐만 아니라 봉사활동도 꾸준히 이어가겠다”라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고창=백종규 기자

남원시 대강면 임안희목사, 관내 취약계층에 물품 기부

남원시(시장:최경식) 대강면은 지난 5일 대강교회 임안희목사는 냉장고(1대), TV(3대), 전자레인지(2대)를 관내 경로당 2개소 및 취약계층 3가구에 기부했다고 전했다.

대강교회 임안희목사는 “작년에도 제가 편동경로당에 냉장고를 기부했는데 진일하이장님과 마을 어르신들이 너무 좋아하셨다. 처음에 이웃과 나누고 싶다는 생각에서 시작한 일이었는데 올해도 이렇게 기부를 할 수 있게 돼서 매우 감사할 따름이다”라고 말했다.

김종표 대강면장은 “도움이 필요한 곳에 후원물품을 연계할 수 있게 해주신 임안희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인적·물적 자원을 적극 발굴하고 관내 취약계층을 돌보고 어려운 욕구를 해결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남원=정하복 기자

알뜰천하주유소, 김제시에 이웃돕기 성금 4백만 원 전해

김제시(시장 정성주)는 알뜰천하주유소(대표 이정복)가 5일 이웃돕기 성금 4백만원 기탁하며 희망 2025 나눔 캠페인에 동참했다고 밝혔다.

이번 기탁은 관내 저소득 가정과 복지 사각 지대에 놓인 이웃들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지역사회에 온정의 손길을 더했다.

이정복 대표는 “추운 겨울 어려운 상황에 처한 이웃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성금을 기탁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를 위한 나눔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알뜰천하주유소의 따뜻한 나눔 실천에 깊이 감사드립니다”며, “기탁된 성금은 관내 어려운 이웃들에게 소중히 전달하겠다. 이러한 나눔이 김제시 희망 2025 나눔 캠페인의 성공적인 마무리에 큰 힘이 되고 있다”고 전했다.

/김제=온봉기 기자

장수군 개인택시 단위조합, 지역 인재 육성 장학금 210만원 기탁

장수군 개인택시 단위조합(조합장 정춘원)이 5일 장수군청을 방문해 210만원의 장학금을 (재)장수군애환교육진흥재단(이사장 최훈식)에 기탁했다.

개인택시 단위조합은 1990년에 출범한 조합으로 장수군에서 개인택시를 운영하는 26명의 조합원으로 구성돼 있다.

정춘원 조합장은 “장수군의 미래인 학생들에게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조합원들의 마음을 모아 기탁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여러 사회공헌활동을 펼치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최훈식 이사장은 “우리 지역의 우수 인재 육성에 관심을 갖고 지원해주시는 조합원분들께 감사드립니다”며 “학생들의 잠재능력 향상에 도움이 되는 각종 장학사업과 교육사업을 발굴해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장수=최진수 기자

다시 확인하셨습니까?

겨울철 화재 예방법

겨울철 전기제품 안전하게 사용하기

전기히터, 장판, 전기 열선등 화재 위험 가능성이 있는 전기 제품을 안전하게 사용 해요!

개진 불도 다시보기

담배꽂초 담배불로 큰 불이 날 수 있으니 다시 한 번 확인 해요!

1차량 1소화기 갖기

안전한 차량 운행 을 위해 1차량 1 소화기 를 비치 해요!

〈一事一言〉



내 주변에 숨어 있는 ‘내란 동조자’ 감별법(1)

오태규
언론인

‘윤석열의 난’으로 5100만 한 국민 모두가 50일 넘게 계량하기 힘든 정신적·물질적 고통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보고 싶지 않아도 볼 수밖에 없는 짜증 만발의 뉴스와 장면이 불러오는 정신적 고통이 물질적 고통보다 압도적으로 크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걸 숫자로 속 시원하게 보여주지 못하는 게 답답하고 안타까울 뿐입니다.

그러면 숫자로 표시할 수 있는 물질적 고통의 크기는 얼마나 될까요? 최근 <연합뉴스>가 작년과 올해의 성장을 변동치를 비교해 추계해 봤더니,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6.3조 원 정도 낮아갈 것이라는 계산이 나왔습니다. 현대차의 중형세단 쏘나티를 무려 22만 5천 대를 팔아야 매울 수 있는 액수라고 합니다. 윤석열은, 야당이 677조 원 규모의 2025년도 정부 예산안에서 4조 원을 삭감한 걸 ‘예산 폭거’ 운운하며 비상계엄 실시의 명분으로 내세운 바 있습니다. 더하기 빼기만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이것만으로도 그가 얼마나 바보짓을 벌였는지 금세 알 수 있을 겁니다.

그의 뺑질이 막대한 유행·무형의 손실을 불러왔는데도, 더구나 그가 구속기소까지 됐는데도, 겉으로 아닌 척하며 윤석열을 옹호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꽤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속을 헤아리게 해주는 리트머스 시험지가 있다면 그들의 정체를 쉽게 간파할 수 있을 테지만, 그게 그리 만만한 일

이 아닙니다. 오죽하면 ‘열 길 물 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알 수 없다’라는 속담까지 나왔겠습니까.

미국 명문 하버드대학교에서 민주주의와 독재 문제를 오랫동안 연구해 온 스티븐 레비츠키 교수와 대니얼 지블랫 교수가,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라는 책에서 독재자를 감별하는 기준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일종의 ‘독재자 감별 리트머스 시험지’죠. 그들은 (1) 민주주의 규범에 대한 거부(혹은 규범 준수에 대한 의지 부족) (2) 정치 경쟁자에 대한 부정 (3) 폭력에 대한 조장이나 묵인 (4) 언론 및 정치 경쟁자의 기본권을 억압하려는 성향을 판별 기준으로 내놓고 이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독재의 위험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설날 연휴 기간 중 윤석열이 네 가지 기준 중 몇 가지를 충족하는지 따져보는 것도 살아 있는 훌륭한 정치 교육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저는 범위를 좁혀 지금 한국 사회에서 누가 ‘윤석열 내란’을 옹호하는 사람인지 감별하는 기준을 나름대로 제시해 보고자 합니다. 이른바 ‘내란 옹호자 감별 리트머스 시험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침, 설 연휴 기간에 많은 친지들을 만나 계엄이나 내란 얘기를 화제에 올릴 수밖에 없을 테니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째, ‘계엄을 하려면 프로답게 확실하게 했어야지, 아마추어처럼 서투르게 하니 되겠느냐’라며

계획과 실행의 불철저함을 타박하는 사람들이 첫손에 꼽히는 의심 대상입니다. 대개 정부나 기업에서 고위직을 지낸, 점잔 빼는 사람 중에 이런 부류가 많이 있습니다. 한 지인의 경험담입니다. 계엄 발표 며칠 뒤 고위 경제관료 출신의 지인을 만났더니 대뜸 “그렇게 중차대한 일을 그렇게 허술하게 할 수 있나. 실력이 형편없다”라고 목소리를 높입니다. 어이가 없어 ‘그러면 계엄 발령이 필요했다는 말이 나랏고 되물자, 당황하며 말끝을 흐리며 얼버무리더라’는 얘깁니다.

이들의 특성은 절대 위험·위법의 무도한 내란 행위를 먼저 비난하지 않습니다. 그보다 앞서 내란을 성공시키지 못한 무능을 탓합니다. 논점 이탈의 전형적인 내란 옹호 수법입니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 사람들은 내심 계엄이 성공하길 바랐지만 실패해 못내 아쉬워하는 ‘위장 세력’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둘째, 내란을 실행하라는 명령을 완수하지 못한 군인의 무능을 탓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군인의 사명은 상부에서 명령하면 그제 옳든 그르든 따지지 말고 완수하는 것, 즉 까라면 까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입니다. 심지어, ‘장군이란 자들이 국회에 나와 술술 불고 눈물이나 짜는 걸 보니 못 봐주겠더라, 전쟁이 나면 이렇게 군기 빠진 군을 믿고 잘 수 있겠느냐, 제대로 싸움이나 할지 모

르겠느냐’라고 게거품을 물니다.

이런 축에는 독재정권 시절에 권위주의 문화에 찌든 군대 생활을 경험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들과는 아예 대거리도 하지 말고 피하는 게 상책입니다.

셋째, 야당 책임론을 내세우는 사람들입니다. 윤석열이 계엄을 실시한 것도 나쁘지만, 그보다 탄핵을 남발하고 예산을 삭감하면서 정부가 일을 하지 못하도록 몰아붙인 야당의 책임이 더 크다고 주장합니다. 즉, 비상계엄은 윤석열이 야당의 폭주를 참다 참다 못 견디고 일을 하려고 취한 불가피한 조치였다는 겁니다. 원인과 결과를 거꾸로 뒤집어 말하는 전형적인 허위 선동술입니다. 아마 시중에서 가장 널리 행해지고 있는 내란 옹호론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런 주장은 운동 경기에 비유하자면, 승부 조작의 중대범죄가 상대 팀 선수의 경기 중 반칙 행위 때문에 일어났다고 강변하는 꼴입니다. 그만큼 터무니없는 꾀변입니다.<계속>

본 칼럼은 시민언론 민들레에게 게재된 내용임을 밝힙니다.

외부원과 및 기고는 본지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사설

농생명산업 수도 육성은 전북의 미래다

전북자치도가 대한민국 농생명산업의 수도로 도약하기 위해 야심찬 계획을 발표했다. 민선8기 도정 목표에 맞춰 농생명산업을 핵심 성장동력으로 삼고 식품기업 매출 6조5천억원, 농가소득 5천7백만원 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전략을 제시했다. 이러한 계획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철저한 실행력과 지속가능한 정책적 뒷받침이 필수적이다. 우선 스마트팜 조성과 청년농업인 육성 사업이 주목할 만하다. 청년창업 스마트팜 패키지 지원, 임대스마트팜 건립 등으로 신규 17ha의 첨단 스마트팜을 조성하는 계획은 국내 최고 수준의 창업보육 환경 구축에 기여할 것이다. 그러나 스마트팜은 초기 투자비용이 높고 기술 적응력이 부족한 농업인들에게는 진입장벽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지속적인 교육 및 기술지원 체계를 마련하고 스마트팜 운영 노하우를 축적할 수 있는 멘토링 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

농산물 유통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도 긍정적이다. 지역 먹거리 조 직화, 친환경 급식 확대, 농산물 물류기 기 공동이용 지원 등은 생산자와 소비자가 상생할 수 있는 기반이 된다. 그러나 유통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단순한 지원책을 넘어 유통구조의 혁신이 필요하다. 농식품 수출 확대를 위한 노력 또한 중요한 과제다. 중동, 호주, 캐나다 등 신 시장 개척과 유망 품목 육성 계획은 글로벌 시장에서 전북 농식품의 경쟁력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다. 그러나 국제 무역의 불확실성과 수출 규제 등을 고려하면 보다 철저한 시장조사와 맞춤형 전략이 요구된다.

농생명산업의 미래 성장동력으로 꼽히는 종자생명산업과 동물용 의약품 산업의 기반 구축 역시 기대된다. 국가식품클러스터 2단계 확장과 종자생명산업 클러스터 조성 계획은 장기적으로 전북의 농생명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핵심 요소다. 농촌 인력 수급 문제 해결도 시급하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9천명 도입과 기숙사 조성 계획은 농번기 인력난 해소에 도움이 될 것이다. 하지만 단기적인 외국인 노동력 도입뿐만 아니라 국내 인력을 유입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 농민 공익수당 확대, 기본형 공익직불제 단가 인상, 농업수입보장보험 확대 등의 정책은 농가소득 안정망을 강화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특히 농업소득 불안정성이 높은 현실을 고려하면, 공익직불제의 확대와 농촌기반소득 도입 시범사업은 더욱 철저한 검토가 필요하다.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사업 또한 주목할 부분이다. 농촌 유희시설 리모델링, 농촌 서비스 공간 확대, 농촌경제·사회서비스 활성화 지원센터 안골 등은 농촌의 생활 여건을 개선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전북도가 계획한 33개 사업에 1조 6천931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다. 예산이 효과적으로 사용되기 위해서는 철저한 사업 평가와 투명한 집행이 필수적이다. 전북이 대한민국 농생명산업의 수도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단순한 계획 수립을 넘어 지속 가능한 실행과 혁신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농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농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기 위한 노력이 끊임없이 이어져야 할 이유다.

문화재 열전



참당암 동종
(전북특별자치도 유형문화유산)

-분류- 유물, 불교공예
-지정일- 1992년 6월 15일
-시대- 조선시대
-소재지- 고창군 아산면 선운사로 250

▲오늘의시

진실보다 힘든 것 / 박노해

진실이 꽃이 피고
진실이 악어오고

진실이 빛나기는
참으로 험거운 것이지만

살은, 거짓이 더 힘든 일이다

거짓은 거짓을 낳고
거짓은 거짓을 치고
거짓은 죽음을 불러

보라, 마침내 거짓은
스스로
진실을 드러내느니

살은, 진실이 진실로 사는 길이다

시인 약력 : 1957년 전남 함평 출생. 16세에 상경해 낮에는 일을 하고 야간엔 선린상고에서 수업을 들었다. 1983년 ‘시와 경제’에 ‘시대의 꿈’이라는 시를 발표하면서 등단했다. 1984년 시

집 ‘노동의 새벽’을 내서 한국 사회에 큰 충격을 안겼고 1백만부 이상 팔려 밀리언 셀러가 됐다. 7년간 수배생활을 하다 1991년 안기부에 체포돼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

다. 1998년 DJ 정부때 특별 사면으로 7년 6개월 만에 출소했다. 이후 민주화운동 유공자로 복권되었으나 국가보상금을 거부했다. 육중 에세이 ‘사람만이 희망이다’ 등 다수의 작품을 출간했다.

JBT 전북타임스 Jeonbuk Times www.jeonbuktimes.co.kr		2011년 10월01일 創刊 / 등록번호 전북 가 -00022 (윤관우)54990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태진로77(진북동)5층
발행, 편집인 송민순		편집국장 김관춘
대표전화 282-9601		인쇄인 김은주
업무국 팩스 282-9604		편집국 팩스 283-8800
전주시사 010-9845-4113	군산지국 010-8641-7942	무주지국 010-8411-0835
중앙지사 010-9678-4271	남원지국 010-2285-3987	임실지국 010-8642-6502
인후지사 010-8640-6855	익산지국 010-9560-3075	전안지국 010-2433-1721
팔백지사 010-3015-4791	김제지국 010-4572-6112	장수지국 010-8626-6049
송천지사 010-5242-3694	정읍지국 010-2800-2934	순창지국 010-5312-7293
·구독료 :월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 윤리 강령 및 실천요령을 준수합니다		

도민의 제보가 지역사회 만드는 힘이 됩니다

<https://www.jeonbuktimes.co.kr>

기사제보-063)282-9600~3

익산로컬푸드협동조합, 소농과 소비자 상생의 가치 실현

“오늘은 어떤 신선한 채소가 들어왔을까 설레는 마음으로 매장 문을 엽니다”



땅이 얼어붙고 눈이 내리는 추운 날씨에도, 익산로컬푸드협동조합 매장은 갓 수확한 양배추와 각종 채소들로 가득 차 있다. 소농, 영세농, 고령농의 보금자리

이자 지역 농민들의 생활터전으로 자리 잡은 이곳은, 생산자와 소비자 간의 두터운 신뢰를 바탕으로 지속적인 성장을 이어나가고 있다.

“익산로컬푸드직매장 어양점 방문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가장 먼저 로컬푸드직매장에 들러요. 오늘은 어떤 신선한 채소가 들어왔을까 설레는 마음으로 매장 문을 엽니다.”

가족에게 건강한 식탁을 차리고 싶었다는 김영희(57) 씨는 3년째 익산로컬푸드직매장을 찾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들르는 매장은 이제 그녀의 일상이 되었습니다.

“농부들이 직접 가져다 놓은 채소들은 마트 채소와는 달라요. 어제 저녁에 수확했다는 상추는 이슬이 마르기도 전에 매장에 진열되니까요. 이런 신선함을 어디서 찾을 수 있었어요?”

특히 그녀가 좋아하는 건 생산자의 이름과 연락처가 적힌 생산자 정보입니다. “내가 먹는 채소를 누가 길렀는지 알 수 있다는 게 참 좋아요. 가끔 농부님께 감사 인사도 전하곤 합니다.”

“이제는 매장 생산자들과도 아침 인사를 나누는 단골이 되어 친한 사이가 되었어요. 오늘은 어떤 채소가 들어왔는지, 어떻게 조리하면 맛있는지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하루가 더욱 풍성해 집니다.”

매장 방문이 일상이 되면서 식탁도, 삶도 더욱 건강해졌다는 그녀의 미소에서 로컬푸드의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지 알 수 있었습니다.

◆ “아침을 여는 농부들의 설렘”

새벽 잠을 설치며 수확한 농산물을 들고 매장에 도착한 김순자(72) 할머니는 오늘도 정성스럽게 상품을 진열합니다. 작은 텃밭에서 정성껏 키운 쌈채소들을 한 단 한 단 매장 진열대에 놓으며, 할머니의 얼굴에는 뿌듯한 미소가 번집니다.

“비록 큰 농사는 아니지만, 내가 정성들여 키른 채소들이 이렇게 매장에 진열되는 걸 보면 농부로서의 자부심이 생겨요. 손주들한테도 당당하게 ‘할머니가 기른 거야’ 하고 말할 수 있어 좋습니다.”

이런 아침, 매장은 소농, 영세농, 고령농들의 분주한 발걸음으로 활기가 넘칩니다. 각자가 정성들여 기른 농산물을 들고 와 차곡차곡 진열하는 모습에서 농부의 자존심과 긍지가 묻어납니다.

“농사지는 것 팔려고 시장 돌아다닐 필요 없이 여기에 가져다 놓으면 되니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내 이름을 걸고 판매하니 더 정성껏 기르게 되고, 소비자들이 우리 농산물을 찾아주실 때면 보람도 크고요.”

작지만 강한 농업, 그것이 바로 이곳 익산로컬푸드직매장에서 만나는 우리 농부들의 모습입니다.

◆ “익산 지역 농업의 희망, 익산로컬푸드협동조합”

“농민은 제값 받고, 소비자는 신선하게”라는 슬로건 아래 운영되는 익산로컬푸드협동조합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끄는 착한소비의 선두주자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오동은 조합장은 “아침에 수확한 채소가 오후면 식탁에 오르는 것이 바로 로컬푸드의 힘”이라며 자부심을 드러냈다. 지난해 99억 원의 매출 달성은 이러한 노력의 결실을 보여준다.

익산 지역의 농산물이 익산 지역에서 소비될 때, 진정한 의미의 지역 농업이 살아납니다.

오동은 익산로컬푸드협동조합장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있었다.

취임 이후 그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바로 ‘정직한 농산물과 소비자 신뢰, 소농, 영세농, 고령농 중심 매장’이었다. 익산에서 생산된 신선한 농산물이 다시 익산 시민의 식탁에 오르는 것, 이것이 바로 로컬푸드의 핵심이라고 그는 강조했다.

◆ 소비자 만나 소비자 교류행사

익산로컬푸드협동조합은 소비자가 찾아 주는 익산로컬푸드직매장에서 만나는 소비자분들 생산자 소비자교류활동을 통해 소비자와 함께 하는 시간을 마련하기도 합니다.

행사장 곳곳에 웃음소리가 넘쳐 춤을 춘다. 샌드위치를 만들며 서로의 요리 비법을 나누는 참

가져들, 천년초 요리의 새로운 맛에 감탄하는 목소리, 아이들의 즐거운 웃음소리가 어우러져 축제 같은 분위기를 자아냈습니다.

“오늘 만든 음식들이 더 맛있는 것은 함께 나누는 기쁨 때문일 거예요” 한 참가자의 말처럼, 이날의 교류행사는 단순한 체험을 넘어 생산자와 소비자가 서로를 이해하고 공감하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평소 사 먹기만 하던 과일도 이렇게 예쁜 타르트를 만들어보니 더 특별하네요. 아이들과 함께 만들면서 웃음꽃이 피었어요.”

두 아이의 어머니 김미영 씨는 과일타르트 만들기 체험에 참여하며 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 지역 사회 나눔과 봉사

“우리가 만드는 도시락 하나하나에 이웃사랑이 담기길 바라며...” 익산로컬푸드협동조합에서는 특별한 나눔의 손길을 보내기도 합니다. 신선한 로컬푸드 식재료로 정성껏 준비한 도시락들이 테이블 위에 가득 쌓여갑니다.

“로컬푸드 매장에서 판매하는 신선한 채소와 과일도 이렇게 도시락도 만들고 김치도 담그니, 나눔의 의미가 더 특별하게 다가옵니다.” 봉사에 참여한 회원들의 얼굴에는 뿌듯한 미소가 가득합니다.

지역 농산물로 정성껏 준비한 음식이 어려운 이웃의 식탁에 따뜻한 온기를 전하고, 그 나눔의 기쁨이 다시 지역사회로 돌아오는 선순환. 이것이 바로 익산로컬푸드협동조합이 추구하는 진정한 나눔의 가치입니다.

“함께 살아가는 지역사회를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 실천하는 것, 그것이 협동조합의 참된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익산로컬푸드협동조합의 나눔 활동은 지역사회를 더욱 따뜻하게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 “익산지역 소농의 희망, 익산로컬푸드협동조합”

현재 950개 농가가 참여하여 99억 원의 연간 매출을 달성한 익산로컬푸드협동조합은 더 큰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오동은 조합장은 “직매장 확대와 온라인 플랫폼 강화, 친환경 농산물 비중 확대, 제2매장 등을 통해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룰 것”이라고 밝혔다.

“소농, 영세농, 고령농이 우리 조합의 중심입니다. 농사 규모는 작아도 자부심만큼은 크게 가질 수 있도록, 우리 조합이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익산로컬푸드협동조합은 익산 지역 농업의 영세농, 소농, 고령농 희망이 되고 있다. 오동은 조합장은 “익산에서 생산하고, 익산에서 소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꿈꾸는 진정한 로컬푸드의 모습입니다.”

익산로컬푸드협동조합은 소농, 영세농, 고령농과 함께 성장하며 상생의 가치를 실현해왔다. 이제 대한민국 차림 협동조합 1번지로서 지역 농업의 상생 표준을 만들어가고 있다. 신뢰와 상생으로 만들어가는 우리의 자부심, 그것이 바로 익산로컬푸드협동조합 가치이다.

/이상훈 기자

